미국, 2012 농업법 상원의원 통과

직불금 50억 달러 폐지

❍ 지난 6월 21일 미국의 '2012년 농업법'이 미 상원의원을 통과함. 상원의원은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5년 간 4,980억 달러를 지원하는 안건을 가결시킴. 이 법안은 직불금 50억 달러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것을 제안함.

❍ 이 법안은 소득감소 피해가 21%를 넘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 '작물보험' 외에도 11~21%의 소득감소를 입은 농가에도 최근 5년간 평균소득의 90%까지 보전해 주는 '저손실(소득) 보전제도'를 도입해 농가소득의 감소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임.

❍ 저손실 보전제도가 도입되면 밀·콩·옥수수 등 주요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상당한 이득을 얻게 되는 반면 쌀·땅콩처럼 직접지불에 의존하는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소득의 60% 이상이 감소될 수 있어 반대함. 과일·채소 등 원예농업이 발달한 캘리포니아·뉴욕 등에서도 저손실 보전이 별다른 이득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반응임.

❍ 정책은 연간 소득 75만 달러 이상 되는 부유한 농민에게는 보험료 보조금을 줄이고 토양, 물, 야생동물 보호를 실천하는 농업인 등 보조금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을 필요로 함.

❍ 환경 단체는 푸드 스탬프(Food Stamp) 삭감에 대하여 상원의원들을 비판함. 또한 환경 단체는 의원들에게 이러한 프로그램 강화 및 작물보험 비용의 통제를 요구함. 미 농무부 장관은 농업법 개정이 계속 진행되길 촉구함.
  - 현재 미국에서 푸드 스탬프에 의존해 살아가는 인구가 약 4,600만 명임.

❍ 올 9월 30일에 효력이 만료되는 2008년 농업법은 힘겨운 투쟁에 직면할 것이 예상됨. 스코틀랜드 출신의 유럽 의회 의원(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, MEP)인 에이린 스미스(Alyn Smith)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, EU 농업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미국 농업법 개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함.

자료: Weekly Agra news(Agra, 2012.06.26)

러시아, WTO 가입 법안 하원에 제출

러시아 정부, 하원에 WTO가입 의정서 비준에 관한 연방법안 제출

❍ 러시아의 WTO 가입 의정서 비준에 관한 연방 법안이 7월 4일 하원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임. 연방 법안이 통과하면 WTO에 비준을 통지한 후 30일 이내에 러시아는 WTO의 정식 가입국이 될 예정임.

7월 중 가입 수속 완료

❍ 메드베데프 총리는 2012년 6월 7일자 연방정부 결정 제 564호에 근거하여, '세계무역기구를 설립하는 마라캐쉬 협정(WTO 협정)'에 대한 러시아 가입에 관한 의정서를 승인함.
- 러시아 정부는 동 의정서의 비준에 관한 연방 법안을 하원에 제출하고 안드레이 벨로우소브 경제발전부 장관을 의회 법안심의 시 정부대표자로 지명함.

❍ 러시아의 WTO 가입은 2011년 12월 16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 정식으로 승인되었음. 국내 의회의 비준은 동 승인 후 220일 이내이며 7월 23일까지 비준할 필요가 있음.

❍ 연방정부의 결정으로 6월 7일에 연방 법안이 하원에 제출되었음. 우선 하원의 경제 정책·혁신발전·기업 활동 위원회에서 법안이 심의될 예정임. 동 위원회의 의장에 따르면, 7월 2일에 동 위원회와 정부대표자들과의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4일에는 하원 본회의에서 심의될 전망임.
- 통상 1~3회의 법안 심의를 통하여 하원에서 승인되고 상원의 심의와 승인 후, 대통령의 서명에 의해 연방법이 성립됨.

❍ 러시아 총리는 6월 7일 내각회의에서 경제발전부 장관 및 관계 각료에게 WTO 가입에 필요한 모든 수속을 완료하기 위하여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지시하였으며 8월초에 러시아는 WTO의 정식 가입국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함.

자료: 일본무역진흥기구, JETRO(https://www.jetro.go.jp 2012.06.13)

일본, 농산어촌 재생가능자원에 의한 전기 발전 촉진 법률 제안

재생가능에너지 발전에 의한 농산어촌의 활성화

❍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전 사고를 계기로 재생가능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음.

❍ 금년 7월부터 일정한 가격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전기를 매입하는 제도(고정가격 매입제도)가 시작되어 농산어촌에 풍부한 토지, 물, 바이오매스자원을 활용하는 발전 사업으로 지역 소득의 향상과 농산어촌의 활성화로 연결되길 기대하고 있음.

❍ 농산어촌 등은 식량 공급이나 국토 보전, 지역사회의 유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무계획적으로 발전 설비가 정비될 경우, 농림어업에 필요한 농지 등이 상실되고 역할이 손상될 우려가 있음.

- 농림어업의 발전과 재생가능에너지 전기의 발전을 촉진시켜 농산어촌의 활성화 도모와 동시에 에너지 공급원의 다양화에 공헌하는 제도를 창설함.

법률안의 개요

❍ 이 법안은 정부의 기본 방침에 근거하여 시정촌(市町村)의 재생가능에너지를 발전시키는 설비 정비 구역, 농림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기여 등을 정하는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것임.

❍ 이 기본 계획에 따라 재생가능에너지를 발전시키는 설비를 정비하는 관계자는 시정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각종 규제에 대한 허용 등 원스톱 서비스(one stop service)과 농림사업자의 권리 이전을 촉진시키는 계획의 대상이 될 것임.

농산어업과 어울리는 재생가능에너지 도입 사례

❍ 낙농이 주산지인 마을이 전체가 태양광 발전을 도입한 사례에 따르면 마을 의 100호 낙농농가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발전된 전기를 축사 내에서 사용하고, 태양광 발전을 활용하여 생산한 우유는 친환경우유(eco milk)로 홍보 판매함.

- 낙농가의 전력비 감소, 에너지의 생산지와 소비지가 같아지는 지산지소(地産地消) 효과, 해당지역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 효과가 있음.

❍ 농업용 도로 정비와 함께 풍력 발전 설비를 설치한 사례에 따르면 구릉지에 풍차를 설치하여 풍력 발전으로 얻은 전기를 판매하고 있으며, 토지소유자인 농가는 전기 판매로 얻은 수입의 일정비율을 수익으로 얻는 계약을 체결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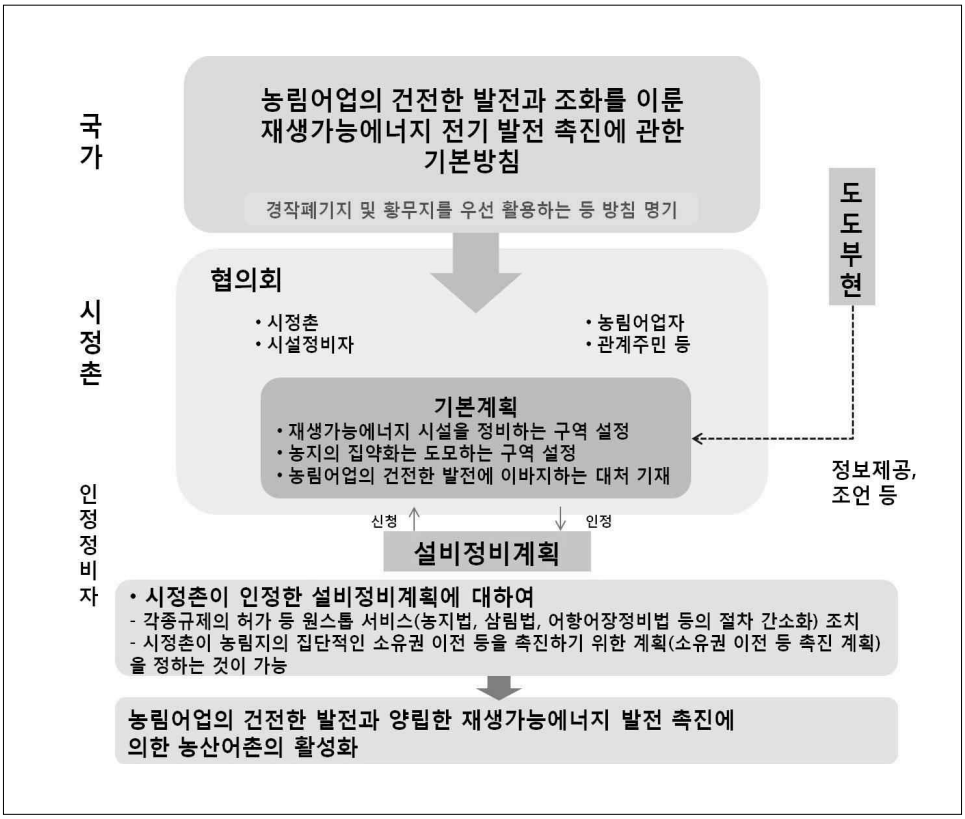
- 관련 설비를 건설하기 전에는 경작이 포기되는 농지가 많았지만, 발전 설비와 함께 도

로가 정비되면서 작업의 편리성이 향상되어 농작물 경작이 증가함.

❍ 소규모 수력(小水力) 발전에 의한 토지개량시설에 의한 전기 공급 사례에 의하면 농업용수를 이용하여 발전하고 발전한 전기는 토지개량시설에 공급함.

- 토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비용 경감에 기여함.

그림 1 법률안 흐름도



❍ 지역에서 이용되지 않는 간벌재(間伐材)을 이용한 목질바이오매스 발전사례에 의하면 지역의 임업 바이오매스 자원(간벌재, 벌채목, 그루터기(伐根), 버찌의 전정가지 등)을 원료로 하여 가스 발전시키고 여기서 얻은 전기를 판매함.

- 이용되지 않는 간벌재를 활용하여 지역의 삼림 유지와 보전, 임업경영 개선에 기여함.

자료: (2012.05 제5호)

브라질 농무부, 2021 농업생산 장기예측 발표

❑ 브라질 농무부, 농업생산 관련 2021년도까지의 장기예측 발표

❍ 브라질 농무부 전략관리실(AGE/MAPA)은 4월, 브라질 농축산업의 전개 방향을 논의하는 동시에서 중요한 지표가 되는 2021/2022년도 (7월~다음 해 6월까지의 주요 농축산물의 생산 예측을 공표함.

❑ 옥수수, 대두, 식육, 설탕을 중심으로 생산량 대폭 증가 예측

❍ 2011/12년도~2021/22년도까지 10년간 주요 농축산물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. 생산량은 옥수수 7,042만 톤(18.1% 증가), 대두 8,891만 톤(25.1% 증가), 설탕 4,860만 톤(25.7% 증가), 식육 부분에서는 닭고기 2,033만 톤(56.1% 증가), 쇠고기 1,183만 톤(32.3% 증가), 돼지고기 407만 톤(22.0% 증가)으로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.

❍ 옥수수, 대두 및 설탕 원료인 사탕수수는 경작면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임. 10년간 옥수수는 1,438만ha (4.3% 증가), 대두는 2,909만ha (19.9% 증가), 사탕수수는 1,091만ha (20.4% 증가)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. 대두 및 사탕수수 경작면적의 증가는 새롭게 개발되는 토지와 목초지 등으로부터의 전작(轉作)이 요인으로 여겨짐.

❍ 육류도 국내외의 높아진 수요로 인해 닭고기를 시작으로 대폭적인 생산량 증가가 예상됨. 육류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사료곡물의 소비량도 증가하여 옥수수 생산량의 83.5%, 콩깻묵의 50.5%는 국내에서 소비될 전망임.

❍ 브라질은 특히 대두, 쇠고기 및 닭고기에 대하여 주요 수출국으로서의 존재감을 더할 것으로 보임. 2021/22년도 세계 무역량에서 대두는 43.0%, 쇠고기는 23.2%, 닭고기는 43.5%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.

❑ 전년 대비 MATOPIBA지역 약진 예측

❍ 북부·북동부의 마라냥주(Estado do Maranhão, MA), 또깐띤스주(Estado do Tocantins, TO), 피아우이주(Estado do Piauí, PI), 바이주(Estado do Bahía, BA)의 4개 주(州)에 걸치는 MATOPIBA지역 및 중서부의 마또구로소(Estado de Mato Grosso)주의 새로운 농업지역은 평탄하고 광대한 토지, 풍부한 수원, 생산에 적합한 강우량 및 일조시간으로 옥수수와 대두를 비롯한 품목에서 20% 초과 증산이 기대됨.

- 마또구로소주에서는 이후 10년간 MATOPIBA지역을 크게 상회하는 농지가격의 앙등이 우려됨. 양 지역의 과제로서 도로나 항만 등 수송 접근의 정비, 자금 부족 등을 들 수 있음.

자료: (2012.05.31)

미국, 농산물 수출을 통한 효과 강조

❑ 농산물 수출을 통한 고용 창출 및 농촌경제 발전

❍ 미국 농무부 장관은 미국의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수요를 유지시킬 수 있는 대책을 관련 사업의 책임자와 지역사회의 지도자들과 논의함.

- 농무부 장관은 미국은 농업을 통하여 농촌의 고용을 창출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등 미국과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힘.

❍ 백악관 농촌위원회(White House Rural Council)와 농무부는 농촌 고용과 농가경제 지원에 필요한 세부 단계와 농가경제의 변화를 보여주는 보고서를 발간함.

❍ 농무부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부터 5년 후 미국 수출이 두 배로 늘어 나기 위한 목표 달성에 노력하였고, 2년 후에는 이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고 강조함.

- 전 세계의 사람들은 미국이 농산물 수출관련 사업을 확대해 주고 농촌의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음.

❍ 미국 농무부는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 무역 장벽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.

❍ 미국의 농업 수출은 포장 및 출하에서 식품 가공, 운송 산업에 이르기까지 약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. 농무부 장관은 이 같은 농산물 수출의 성공 사례의 증거로 5.1%의 낮은 실업률을 지적함.

❍ 지난해 아이오와주(Iowa State)에서는 농산물 수출로 약 6만의 고용 창출이 이루어졌으며 70억 달러 농산물 수출을 기록하였음. 지금까지 아이오와 주(州)의 농산물 수출은 지난해 기록을 갱신하며 15%의 이익을 나타냈음.

❍ 아울러 농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국가 전략은 미국 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기록적인 농산물 수출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이 과정을 기록한 농무부와 백악관 농촌위원회의 공동 보고서를 강조하였음.

보고서의 기타 주요 특징

❍ 혁신 : 미국 농업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을 지닌 농업으로 유지하도록 혁신함. 2011년 미국 농업부문의 소득이 981억 달러에 달하였으며,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2011년의 실제 농업부문 소득액은 지난 50년간에 있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임.

❍ 청정에너지 : 행정부는 농업인, 목장주 및 산림경영자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바이오연료, 바이오에너지, 풍력발전 등과 같은 국내 대체에너지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구함.

- 청정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통하여 1년 동안 59만 이상의 가구에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65억 kWh를 절약했음.
- 미국에 건립된 풍력발전 에너지의 양은 2008년 25,000 MW에서 2011년 47,000 MW로 지난 3년 간 거의 두 배가 증가하였음.

❍ 새로운 산업 : 행정부는 농업 내에 출현하는 새로운 산업을 지원하고 있음. 유기농산업의 시장 규모(소매가격)가 2008년 211억 달러에서 2011년 314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인증된 유기농가의 수도 2009년과 2011년 사이에 6% 이상 증가한 1,109 농가가 되었음.

❍ 지역사회 투자 : 농촌에 6,250개의 새로운 시설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지난 3년간 농촌의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2,000건의 보조금과 대출이 이루어졌음.

❍ 미 농무부(USDA)는 농산물 수출이 지난 3년간 미국 역사 상 가장 높은 공동 성과를 이룬 2011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.

❍ 자유무역협정은 미국 제품이 한국, 파나마 및 EU시장에서 더 많은 판매가 가능하도록 도와줄 것임.

- 미국과 EU는 상대국의 유기농 인증제를 인정하는 '유기농 동등성 협약'을 체결하였음.
- 미국과 EU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유기농 생산자이며, EU는 협정 이후 몇 년 이내에 미국 유기농 시장으로 성장할 시장으로 추정됨.
- 자유무역협정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중복되는 요구사항을 줄이며, 유기성을 보호하면서 인증 비용을 절감시킬 것임.

자료: USDA(http://www.usda.gov 2012.06.12)

FAO, 식품 낭비와 폐기 줄이기 운동 독려

FAO, 식품의 낭비 및 폐기를 줄이기 위한 식품절약 운동(세이브 푸드 이니시어티브[1])에 참가 독려

❍ 2011년에 설립된 세계적인 이니시어티브(initiative)인 '세이브 푸드(SAVE FOOD) - 식품의 낭비 및 폐기에 관한 국제 이니시어티브'는 매년 손실 또는 낭비가 되고 있는 약 13억 톤의 식품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. 매년 식품의 낭비 및 폐기로 인한 손실액은 약 1조 달러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.

❍ 현재 50개 이상의 기관이 식품 절약 캠페인에 참가하고 있음. FAO는 상품 전시회 주최자인 메세 뒤셀도르프 GmbH사와 상품 전시회 실행계획 담당자인 인터팩사와 함께 식품공급체인 전체에 관여하는 비영리 단체와 민간의 새로운 파트너에게 이 운동에 찬동하여 지식 축적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.

❍ 식량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기술, 뛰어난 실천, 조정 및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식품의 낭비와 폐기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의제임.

지속가능성

❍ FAO 농촌사회기반시설 농업산업부장은 손실액인 1조 달러는 전 세계에서 굶주림으로 고생하고 있는 9억 명의 인구를 구제할 수 있으며, 낭비를 줄이기 위한 공동 행동은 생활과 식량안보를 향상시키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언급함.

❍ 인간 소비를 위하여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3분의 1이 폐기되고 있으며, 이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천연자원도 아울러 상실됨. 세계적으로 식품의 낭비와 폐기는 선진국에서는 약 6,800억 달러, 개발도상국에서는 약 3,100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.

❍ FAO 농촌사회기반시설 농업산업부장은 식품 낭비와 폐기를 줄여 식량안보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과제이며, 리우+20 UN 지속가능개발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.

❍ 현재 세계에서 손실되거나 헛되이 낭비되는 식품의 4분의 1만 절약하여도 세계에서 굶주리고 있는 9억의 인구를 부양하기에 충분함.

광범위한 영향

❍ 식품 낭비는 식품공급체인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 원인과 영

---

1 [illegible]

향은 상이함.

- 개발도상국에서는 식량 낭비가 소농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음. 식량 낭비의 약 65%가 수확 이후 가공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음. 예를 들면, 잠비아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'일촌 일품(one village one product)'에서는 농가가 낭비를 줄이는데 앞장서고 있음.
- 선진국의 식품 폐기는 '일회용' 사고방식에 기인하는데 소매점이나 소비자에게서 주로 발생함. 유럽과 북아메리카 소비자의 연간 식품 폐기량은 95~115kg인 반면, 사하라이남, 남부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 소비자의 식품폐기량은 6~11Kg 수준임.

자료: UN식량농업기구 FAO(http://www.fao.org 2012.06.13)

일본, EU의 지리적 표시제 도입 검토

※ 지리적 표시제는 지역의 자연적 특성을 살린 방법이나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 만들어져, 고유한 품질과 특징을 가진 특산품의 명칭을 보호하고 지역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제도임.

❑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지리적 표시제 도입 필요

❍ 본 제도는 유럽 및 아시아의 각국이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며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하여 효과적인 제도임.

❍ 일본도 역사나 전통, 자연적 특성 등에 된 품질 및 특징을 가지는 농림수산물이나 식품이 많이 존재함. 이러한 산품의 고부가가치화와 브랜드화를 더욱 촉진하고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표시제의 도입이 시급함.

- 각 지역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생산·가공되어 해당 지역의 고유한 품질이나 특징을 지닌 상품이 대상임.
- 일정한 생산 및 품질 기준을 만족시키는 특산품에 대해서는 해당 상품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,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특산품에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련 조치를 정비하여 지역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도록 함.

❑ 지리적 표시제 연구회 구성

❍ 총리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'먹거리와 농림어업의 재생 추진 본부'에서 일본의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하도록 정식 추진 중임.

❍ 농림수산성은 금년 3월, 식품산업 및 생산자 단체 대표, 지적재산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'지리적 표시제 연구회'를 설립하여 농림수산물과 식품을 대상으로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하기 위한 검토를 시작함.

❑ 지리적 표시제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

- ❍ 지역브랜드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것으로 대상 특산품의 해외 수출을 촉진할 수 있어 수출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음.
- ❍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져 대상 특산품의 가격상승과 생산자 소득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.
- ❍ 대상 특산품으로 가공식품이나 그린투어리즘(Green tourism)[2]이 함께 발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6차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음.
- ❍ 일본이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·시행한다면 이 제도를 도입한 외국(국가)가 일본의 지역브랜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.

자료: Primaff Review(2012.05.31 No. 47),
(2012.05 제5호)

EU, 유기농업 정책 보고서 발간

❑ 유기 농업 확대를 위한 EU 정책

❍ 독일 튀넨 연구소(Thünen Institute), 스위스 유기농업연구소(Research Institute of Organic Farming, FIBL), 유기농 리서치센터(Organic Research Centre)는 유럽위원회(European Commission)를 대신하여 보고서[3]를 발간함.

❍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EU 국가는 지속적인 농업발전의 수단인 유기농업 정책을 위하여 '농촌 개발을 위한 전략적 가이드라인(Community Strategic Guidelines for Rural Development)'의 권고를 따르고 있음.

❍ 대부분의 회원국은 젊은 유기농 농업인을 위한 재정 지원, 유기농업의 현대화, 유기농 식량 생산, 인증 및 품질 검사 비용, 정보 및 판촉 활동 등을 포함하여 농촌개발프로그램의 Axis 1[4] 바탕으로 유기농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제공함.
- 많은 회원국들은 유기농 농업인에 대하여 교육과 조언을 제공함.

❍ Axis 2[5]에 따라 25개 회원국은 농업환경 지불(agri-environmental payments, AEPs)이나 동물 복지를 제공하는 유기 농업의 추가 비용을 지원하여 유기농법을 지원함.

❍ 체코의 유기농 농업인에게는 비농업 활동의 다각화 및 관광 장려를 통하여 Axis 3[6]이 지원됨.
- 추가 지원은 유기농 식품 생산을 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동농업정책 Pillar I 을 바탕으로 제공됨.

❍ 동 보고서는 유기농업 발전에 있어 국가 후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유기농 분야에 필수사항인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많은 공공수요를 추가함.

❍ 보고서는 회원국의 유기농업 발전에 기초를 제공하는 'EU의 유기식품 및 유기농업을 위한 실행계획(European Action Plan for Organic Food and Farming, EAOP)' 이용 방법을 평가하고 있음.

❍ 아홉 가지 사례 연구 중에 네 가지[7] 연구는 농촌개발 계획(Rural Development Plans, RDPs)에서 EAOP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짐.
- EAOP는 농촌개발계획 및 국가 유기농업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지만 국가·지역 지원

---

3 'Use of the EAFRD for the promotion of organic farming'.
4 .
5 .
6 .
7 , , , .

패키지프로그램과 통합될 수 있음.

❑ 국가 행동 계획(National Action Plan)

❍ 지역·국가 유기농업 정책평가 조사에서 덴마크는 일관된 전략을 실행함으로써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되었으며, 오스트리아와 체코도 전략들을 잘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.

❍ 연구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여러 사례에서 정책 입안자들은 유기농업 측면에서 환경 및 시장 균형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나타남.

❍ 몇몇 지역은 유기농업을 지원하는 현재의 농촌개발계획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려움을 겪는 반면, 영국 및 독일 니더작센주를 포함한 일부 지역은 전략적 비전이 전혀 없었음.
- 소수의 유기농업 이해관계자들은 정책개발을 충분히 참고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음.

❍ 보고서는 일반적인 유기농업 발전 원칙이 더욱 개선될 것을 요구하며, 보다 일관된 유기농 전략 구현을 위하여 유기농업 모니터링 지원 방안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음.

❍ 일반적인 개발 원칙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됨.
-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비전 명시
- 환경 및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는 농업의 이중 역할 강조
- 유기농업 토지관리제도의 지속성 보장
- 농촌개발계획 및 이해관계자 등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 활용

❍ 동 보고서는 2014-2020년 공동농업정책과 연계된 유럽 유기농업 행동계획(European Organic Action Plan)을 개정하여 2014-2020년까지 농촌개발체제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음.

자료: Weekly Agra news(Agra, 2012.06.05)

EU, 유제품 수출입·판매업자연합자 회의 보고

❑ 유럽 유제품수출입 · 판매자연합(EUCOLAIT)[8] 회의 개최

❍ 5월 24일과 25일 양일간 개최된 동 회의에서는 EU 주요 생유 생산국들이 모여 현재의 동향과 향후 예측 및 정책 등에 대하여 각국의 상황을 보고하고 검토함.

-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우유·유제품가격의 하락 및 2013년의 CAP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것 등에 관하여 보고와 검토가 실시됨.

❑ 전체적인 EU 동향

❍ 2010/11년도의 유제품가격 호조로, 2012년의 연초보다 생유 생산량이 증가하였음. 금년 2월보다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생산 확대는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.

- 2010/11년도의 생유 쿼터 초과국은 독일, 네덜란드, 아일랜드가 될 전망임.
- 수출은 중국, 아프리카 등의 수요 증가로 탈지분유 수출이 증가하고 있지만, 2011년의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임. 버터 및 전분유의 수출은 뉴질랜드 과 비교할 때 EU 생산의 가격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감소할 전망임. 탈지분유 및 치즈의 수출은 증가할 전망임.

❍ 증가분을 EU 역내에서 소화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수출 촉진이 필요함. 유로화의 약세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지만, 유럽 금융위기가 우유·유제품에 미친 영향은 미지수임.

❑ 치즈시장 동향

❍ EU 전체 치즈 생산량은 2012년 1월부터 2월에 전년대비 3.3% 증가하였고 작년에 이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음.

❑ 버터시장 동향

❍ EU 전체의 버터 생산량은 2012년 1월부터 2월간 전년대비 6.4% 증가하였으며 작년에 이어 계속 증가하고 있음. 하지만 가격하락이 계속되고 있으며 3월부터 개시된 민간 재고(PSA)가 쌓이고 있음.

❑ 탈지분유 시장 동향

[illegible]

❍ 2011년 탈지분유 생산량은 113만 9,000톤으로 전년대비 13.5% 증가하였음. 2012년 1월부터 2월간, 전년 동기대비 6.9% 증가하였음. 탈지분유는 유로화의 약세 및 달러 강세로 EU생산의 경쟁력이 높아져 중국 등 아시아 수요 증가로 생산이 증가하고 있음.

- 현재 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며 민간 재고가 쌓이고 있는 상태임.
- 전분유는 뉴질랜드의 생산과 가격차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2011년 72만 3,000톤으로 전년대비 5.0%가 감소하였으며, 2012년 1월부터 2월의 생산량도 전년 동기대비 4.4%가 감소하였음.

❑ 2013년 CAP개혁

❍ 유럽위원회 농업총국(DGAGRI)[9]은 유럽 재정이 곤란한 상황에 있으며 CAP개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음.

❍ CAP개혁 가운데 낙농부문에서는 개입 매입가격, 재고보조, 수출보조금이 주된 논쟁이 되었음.

- 금년도 개입 매입가격의 인하가 실시되고 있으며 회의 참석자는 현재의 가격침체와 관련하여 2008년 낙농위기를 인용하였으며 금번 가격하락이 낙농업에 미친 영향을 지적하였음.
- DGAGRI는 금번 하락이 일부 제품의 판매 부진으로 발생한 '구매' 위기이지 '낙농' 위기는 아니라는 언급하였음.
- 보조금 삭감안에 대한 비판과 관련하여 EU는 시장원리를 존중하고, '공적자금투입'으로서의 기능을 중시한다는 회답이 있었음.

❍ 2013년 CAP개혁과 관련하여 독일 농업정보(주)(Agramarkt Informations-GmbH, AMI)는 직접보조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가 큰 우려를 표명하고, 보조 의존도가 낮은 독일은 직접보조 삭감에 대한 영향은 있지만 크게 우려를 하지 않고, 오히려 탈(脫)동조화(Decoupling) 및 환경보호 중시 정책을 적극 지지하였음을 지적하였음.

❍ CAP개혁 예산의 틀이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검토에는 한계가 있어 당초 12월말까지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3월말까지 연장할 가능성이 논의되었음.

자료: (2012.06.11)

9)

FAO 보고서, 농업·식량생산의 화석연료 의존에 경종

세계 에너지의 30% 식량 생산과 가공 및 유통에 사용

❍ 세계의 인구증가 등을 고려하여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의해 세계의 식량를 확보해야 함.

❍ 동 보고서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(Rio de Janeiro)에서 20~22일에 개최되는 세계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각국 정상이 모여 논의하는 리오+20 UN지속가능개발회의를 위하여 정리되었음.

- 동 회의에서는 각국의 환경보전을 위한 온실가스 삭감의무를 배출량 및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부담하는 것과 '그린(Green) 경제'의 정의를 통일할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안건이 될 예정이며, 식량생산의 관점에서 환경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.

❍ FAO에 따르면, 세계 에너지의 30%가 식량생산이나 가공 및 유통에 사용되고, 적지 않은 에너지가 식품 폐기에 소비되고 있음. 따라서 동 보고서에서는 '고유가 및 천연가스량의 상황, 온실가스 삭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농업생산 및 푸드 체인(Food chain)에서 화석 연료의 사용을 억제하지 않는 한 세계의 경제부양 시도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.

❍ FAO 천연자원 관리 환경국장도 2050년까지 세계인구가 91억 명에 달 것이라는 UN 예측을 근거로 하여 그 때까지 식량을 60% 증산할 필요가 있지만, 목표 달성은 엄격하고 세계 농업 및 식료생산은 에너지 이용으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함.

❍ 보고서에서는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벗어날 중요한 방법으로 태양광과 풍력, 바이오매스(Biomass) 등 재생가능 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논과 밭을 갈지 않은 채 농작물을 재배하는 '무경운(不耕起)[10] 재배'의 도입으로 화석 연료의 투입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 등을 들었음. 식량 수송이나 저장에 드는 연료의 효율, 음식물 쓰레기를 적게 하는 요리법의 실천도 강조함.

❍ 온실가스의 삭감과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개발도상국으로 환경기술을 이전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해가 대립되고 있음. 동 보고서가 회의의 논의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는 불투명함.

자료: (2012.06.19)

자료작성: 이혜은 연구원, 최양규 인턴 연구원

---

[10] : , . .